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12월 소매 판매 0.4% 증가... 소비 지출 견조
- FinanceYahoo: 미국인 대부분, 소득에 불만족
- FinanceYahoo: 필라 제조활동지수 4년 반 만에 급등
- FinanceYahoo: 연준 이사 Waller “디스플레이션 예상되면 금리 인하 좀 빠를 수도”
- FinanceYahoo: 미 신규 실업청구 상승... 노동 시장은 견조

[미국 금융]

- Bloomberg: 연방 재무부 지명자 “달러의 글로벌 지위는 미 경제 핵심”

[뉴욕시]

- Bloomberg: Airbnb, 임대 제한 해소 위해 뉴욕에 수백만불 로비 활동

[미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CEO, AI와 사이버 보안 논의
- CNBC: 바이든,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

[물류]

- WSJ: 캘리포니아, 친환경 트럭 의무화 철회

[전기차]

- CNBC: 2024년 미 자동차 판매 중 20%가 전기차

[글로벌 경제]

- WSJ: 유로존 흑자 증가, 미국으로 수출 증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트럼프, 틱톡을 살려줄 계획
- Bloomberg: 타겟, 매출 전망 상향 조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Retail Sales Rose 0.4% in December **미 12월 소매 판매 0.4% 증가... 소비 지출 견조**

- 12월 미 스토어와 식당에 대한 지출이 견조했다. 금리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은 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치로 11월에 비해 0.4% 증가했다. 차량과 차량 부품을 제외한 소매 매출은 예상대로 0.4% 상승했다.

- 전체적인 2024년 소매 판매는 2023년도에 비해 3% 올랐다. 한편 12월 일자리 보고서도 놀랄만하게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FinanceYahoo: Most Americans are unsatisfied with how much money they've saved, Yahoo Finance/Marist Poll 2025 survey shows 미국인 대부분, 소득에 불만족

- 작년 미국인들은 재정 지출과 저축에 있어 도전을 받았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 등 소비에 있어 기본적인 비용이 증가해 우려가 높았다.
- 크레딧 카드 이자율과 용자가 크고, 팬데믹 때 모아둔 저축을 많이 소진했다. Yahoo Finance와 Marist Poll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22%만이 저축 액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의 미국인들은 저축액이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FinanceYahoo: Philly Fed's factory gauge surges by most since June 2020 필라 제조활동지수 4년 반 만에 급등

- 1월 미 중부 아틀란타 지역의 제조활동지수가 4년 반 만에 최고치로 크게 올랐다. 신규 주문과 출하가 급등해 제조 부문의 슬럼프가 끝난 것으로 추정된다.
- 목요일 필라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연준 필라 제조활동지수가 지난 2021년 4월 이래 최고치인 44.3을 기록했다. 12월에는 조정치로 마이너스 10.9를 기록했었다. 마이너스는 활동 위축을 의미한다.
- 구체적으로 신규 주문은 42.9로 지난 2021년 11월 이래 가장 높았다. 출하도 지난 2020년 10월 이래 최고치인 41.0을 기록했다. 고용 수준도 지난 6개월 동안 최고치를 보였다.
- 미 제조활동은 연준이 지난 2022년 초 금리 인상을 시점으로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의 차용 비용 상승으로 수요와 투자가 위축되었었다.

FinanceYahoo 기사

FinanceYahoo: Fed's Waller: Cuts could come sooner than later if disinflation meets expectations 연준 이사 Waller “디스플레이션 예상되면 금리 인하 좀 빠를 수도”

- 연준 이사인 Chris Waller가 연준 금리 인하가 빠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오늘 목요일 밝혔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최근 시장 움직임에 반하는 입장이다.

- 그는 인플레이가 완화된다면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인플레이가 연준 목표 수준인 2%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올해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합리적일 수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2% 접근이 생각보다 약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FinanceYahoo: US weekly jobless claims increase; labor market conditions still healthy

미 신규 실업청구 상승... 노동 시장은 견조

-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러나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다.
- 1월 11일 끝난 주의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1만4천 건 상승해 계절 조정치로 21만7천 건을 기록했다고 연방 노동청을 밝혔다. 전망치는 21만 건이었다.
- 일반적으로 연초의 실업청구건수는 변동성이 있다. 현재 낮은 해고율 등 노동시장과 전반적인 경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가 일자리는 12월에 25만6천개 늘었으며, 실업률은 12월에 4.1%로 전월 4.2%보다 낮았다.

FinanceYahoo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essent to Say Dollar's Global Status Is Critical to US Economy

연방 재무부 지명자 “달러의 글로벌 지위는 미 경제 핵심”

-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는 것이 미 경제 여건과 미국 향후를 위해서 핵심적이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 재무부 장관 지명인 Scott Bessent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방 상원 금융 소위원회 인준 청문회 출두를 앞두고 있다.
- 그는 “우리는 전략적인 경쟁국들로부터 취약한 공급망을 보호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미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Airbnb to Spend Millions in Lobbying New York to Ease Rental Ban

Airbnb, 임대 제한 해소 위해 뉴욕에 수백만불 로비 활동

- Airbnb는 1년 만에 회사 플랫폼에 등록된 뉴욕 숙소 80%의 단기 숙박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뉴욕의 2개 정치 캠페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 Airbnb는 올해와 내년 숙소 임대 사업, 주택 공급 증가, 여행 확대, 호텔 등에 우호적인 뉴욕시와 뉴욕주 정치인들에게 5백만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Airbnb 작년엔 지난 5년간의 로비 금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로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미 행정부]

Bloomberg: Trump, Musk Discuss AI, Cybersecurity With Microsoft CEO **트럼프,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CEO, AI와 사이버 보안 논의**

- 트럼프 당선인,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Satya Nadella이 만나 AI와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그와 자주 충돌했지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Brad Smith는 트럼프 행정부의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미국의 민간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공공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 또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AI에 대한 강력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과 안정적으로 반도체 등 AI 구성요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BC: Biden administration launches cybersecurity executive order **바이든,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

- 오늘 목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새로운 표준과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사이버 보안 및 신기술 담당 국가 안보 부보좌관 Anne Neuberger은 미국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Change Healthcare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중국 해커들이 미국 정부 관리들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했었다고 밝혔다.
- 이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은 개발 과정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고객에

게 안전한 운영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 지난주, 미 정부는 인터넷 연결 디바이스의 사이버 보안을 평가할 수 있는 '미국 사이버 신뢰 마크' 라벨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2027년부터 해당 라벨이 부착된 제품만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 기사

WSJ: California Points to Trump as It Drops a Clean-Trucks Mandate **캘리포니아, 친환경 트럭 의무화 철회**

- 캘리포니아가 트럭 운전자에게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 연료 전지 트럭 구매를 강제하는 친환경 의무를 철회했다.
- 이와 관련해 뉴욕항과 뉴저지항을 오가는 Association of Bi-State Motor Carriers의 회장 Lisa Yakomin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형 트럭은 미국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의무와 규제는 친환경 트럭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기 트럭은 가격이 3배 비싸고,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젤 트럭보다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없다.
-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한 승용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다. American Truck Dealers의 사장 Jacqueline Gelb는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달성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전기차]

CNBC: EV, hybrid sales reached a record 20% of U.S. vehicle sales in 2024

2024년 미 자동차 판매 중 20%가 전기차

- 2024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신차 및 트럭 판매량의 20%를 차지했다. 자동차 데이터 회사 Motor Intelligence는 작년 순수 전기차 130만 대, 하이브리드 모델 19만 대, 총 320만 대의 친환경 자동차가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 미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모델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55%에서 49%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자동차(9.3%), 제너럴 모터스(8.7%), 포드 자동차(7.5%)의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 2025년 전기차는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 시 주어지던 7,500달러의 연방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Cox Automotive는 2025년 전기차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25%를 차지할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Eurozone Trade Surplus Grows as U.S. Exports Tick Higher
유로존 흑자 증가, 미국으로 수출 증가

- 유로존의 11월 무역 흑자가 129억 유로(132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70억 유로보다 증가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미 수입업자들이 유럽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유럽 연합의 2024년 11월 대미 수출은 2023년 11월에 비해 1.6% 증가했다. 반면, 영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Trump is considering a plan to save TikTok
트럼프, 틱톡을 살려줄 계획

-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틱톡 금지 조치를 늦출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 행정부가 누가 미국 틱톡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동안 사용자들이 계속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현재 틱톡 모회사 ByteDance가 4일 내로 틱톡을 미국 기업이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틱톡 이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금지 조치는 오는 일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Target's Guidance Hike Fails to Offset Wall Street Concerns
타겟, 매출 전망 상향 조정

- 타겟이 예상보다 양호한 연말연시를 맞아 매출 가이드를 상향 조정했다. 타겟은 1월까지 이어지는 4분기 매출이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기록적이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큼 큰 성장이 아니었다. Truist의 Scot Ciccarelli는 가정용품 같은 비필수 품목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아마존과 월마트와의 경쟁으로 타겟이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누그러진 물가지표에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다시 살아나 국채금리도 두달만에 최대폭 하락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PI)가 누그러지면서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살아났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12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와 같은 수준으로, 직전월 수치 0.3%보다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4개월째 0.3% 상승률을 이어 오다 이번에 5개월 만에 둔화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